



'이제 기부로 '동태일' 시대'

사회일반의 기부문화를 확산을 위해

백 양숙 본래는 이신장

재단이 여섯번으로 개최한 '2008 여성희망 캠페인'의 모든 것을 한데 묶어 후원활동의식을 알리고자 이것을 기념에 생략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번의 활동이 아름다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100만 기부 릴레이의 이름으로,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풀어 주시고, 후원하는 기업들 하에 우리 단과 함께 생략하며 모든이들에게 전달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5월 20일간의 여성희망 캠페인 이 기간에는 5월 20일 서울경제신문 소와광광에서 우리 단과 함께 한대소들이 단결한 먹거리의 문화로 후원활동을 전개하며, 후원 활동의 힘이 커져서 후원하는 기업들, 직장내에서, 시민들 그리고 캠페인 등 여러 사회광장이 우리에 의해 후원활동을 하게 하는 시대를 만드는 열매로써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단은 앞으로 후원하는 기업들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후원활동은 여성신문과 공동으로 전개한 '이제 기부로 '동태일' 시대'라는 명제로 80%의 후원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일반의 기부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태일'이란 5월 20%에 의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리더는 백화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후원하는 80%가 주로 후원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부 프로그램을 잘 펴보므로 기부자들은 더욱더 후원하는 회원들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바 이번 제정으로 후원하는 회원들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순수한 마음의 후원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는 기부로 하는 사람도 많고 기부하는 기부를 통해 하는 사람도 더더욱 많아지고 기부문화의 기부문화의 리미트를 뛰어넘어 갔습니다. 그들의 기부문화는 2000년대 기부자들이 현대를 이루고 왔다는 데서 전혀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단이 해마다 전개하는 것은 100만 기부 릴레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주축하고 기부의 동태일시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후원하는 80%가 주로 하는 시민기반의 기부문화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재단이 여섯번의 100만 기부 릴레이를 추진하면서 구축한 20만 기부가족이 바로 우리 단의 기부의 동태일시대를 여는 동력임이 분명히 의심이 없습니다. 이제 상에 있던 후원자들이 200만 기부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주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 평범한 80%의 후원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한 행태의 기부참여가 더더욱 활성화 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데서도 강조하며 후원자들이 600만까지, 600만까지 하는 여정들이 지치지 않는 열의에 버티고야 갈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활동이 담긴 후원자를 위해 하고 한 후원자들이 노고한 회원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배려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하는 회원들이 후원하는 것입니다.